**별 생각없이 영화를 보다가 8분쯤에서 당황을 느끼고 열심히 보기 시작했다. 영화를 보면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계속 보면서 주인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항상 인공지능과 지내면서 잘 가나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하는데 더 인간다운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파트너? 를 데려와서 사랑을 나누는 것만 생각해봐도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지만 영화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 잘 느끼지 못했다.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이야기 하고싶은 건지 인공지능의 발달을 말하고 싶은 건지 인공지능과 사람은 못 이뤄 진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건지 아니면 진심 어린 말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건지 도무지 영화가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들었던 생각은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저런 미래가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궁금했다. 지금 상황이면 집에만 박혀 생활하다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나도 저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생기더라도 난 여친이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픈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영화 이기도 했다..**

**---------------------------------------------------------**